



# 미국 특허정보 이용자 그룹(PIUG) 연례회의의 참관기



기획팀  
김정훈

## PIUG 컨퍼런스가 열리는 볼티모어로 가는 길

미국특허정보 이용자 그룹 연례회의(PIUG 2004 Annual Conference)가 열리는 미국 매릴랜드주 볼티모어시(Baltimore City)의 Wyndham Inner Harbor 호텔로 가는 길은 그리 가깝지만은 않았다. 우선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욕(New York)의 존에프케네디(JFK) 국제공항으로 가는 13시간의 여정에 올랐다. 그리고 곧바로 국내선 전용 공항인 라과디아(La Guardia) 공항으로 이동한 후 37인승 소형 프로펠러 비행기로 옮겨 탄 후 80여분 만에 볼티모어-워싱턴 국제공항(Baltimore-Washington International Airport; BWI, 오가는 길에 'BWI' 라는 이정표를 많이 볼 수 있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계속해서 BWI로부터 호텔까지는 미니버스인 'Super Shuttle'을 1인당 15dollar 정도를 지불하고 탔다.(나중에 알았지만, 호텔까지 택시를 타면 4명이 15dollar면 된다고 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도착했다는 안도감과 이국땅이라는 설렘에 일찍 잠들 수는 없었다.

## 볼티모어는?

볼티모어는 필라델피아에서 서쪽으로 160km, 수도인 워싱턴 D.C.의 북쪽에서 40km 거리, 체사피크베이(Cheasapeake Bay)의 북쪽 끝에 자리하고 있다. 매릴랜드주 최대의 공업도시인 동시에 강에 접해있는 항구도시이기도 하다. 이너하버(Inner Harbor)의 북서쪽은 다운타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Downtown Business District)이고, 다운타운 북서쪽으로 반마일 가량 떨어진 마운트버논(Mount Vernon)의 주변지역에는 Baltimore's Washington Monument, Walters Art Gallery, 레스토랑 밀집지역과 몇 개의 썬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이너하버의 동쪽에는 Little Italy와 Fells Point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너하버의 남쪽은 볼티모어시의 Federal Hill 지역이다. 이너하버의 북쪽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전망대에서는 볼티모어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볼티모어-워싱턴 국제공항은 시티센터의 남쪽 16km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볼티모어시의 인구는 50만명 정도인데, 그 수가 점점 줄고 있다고 한다.(BWI에서 Wyndham 호텔로 이동 중에 Super Shuttle에 합승한 현지 목사의 말이다.) 면적은 220km<sup>2</sup>.



볼티모어 Inner Harbor 야경



컨퍼런스가 열린 Wyndham 호텔



### PIUG 설립경과

Patent Information Users Group(PIUG)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iug.org>)에서 자신들의 목적이 특허정보 리서치·분석 시스템의 개발을 독려하고, 회원의 특허정보 리서치·분석 능력을 개발하게 하고, 특허분야의 정보를 교류함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1970 ~ 80년대 정보 전문가들은 정보검색 방법, tip 등의 상호 교류를 위해 ‘온라인 이용자그룹(online users' group)’을 결성하고는 했다. 그러한 것들에는 예를 들면 Cincinnati Online Users Group(COUG) 등이 있었다. 그즈음, 특허 검색 전문가들은 특정 서비스제공자와는 독립적인, 순수 정보 이용자들만의 모임을 결성해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

1987년 여름, 오하이오주립대학(Ohio State Univ.)에서 열린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 ACS)의 정기회의 기간 중 Derwent Symposium이 끝나갈 무렵, Fram Rosenthal, Mike Feider, Suzanne Elsoffer 등은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이러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1988년 5월, Crystal City의 한 호텔에서, IFI Users Conference가 있던 직후, 17명의 특허정보 이용자들이 모여 Mike Feider, Nancy Lambert 등을 회장단으로 선출함으로써 PIUG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시기적으로는, Chemical Abstracts Service(CAS)가 고가의

CASReact, Agpat, Pharpat 등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시작하고, USPTO가 자동화된 특허시스템(Automated Patent System, 당시는 USPTO의 심사관만이 접속가능 했다)을 개발하는 등 특허정보분야에 있어 전자화 된 매체의 출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였다.

현재, PIUG 회원은 전세계 특허정보 이용자들로 확산, 구성되어 있으며 약 600여명에 이르고 있다.

### PIUG 2004 Annual Conference 개요

PIUG 2004 Annual Conference는 “Back to Basics”의 주제 하에 Workshop Session, Technical Session 및 Exhibition의 세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PIUG 컨퍼런스의 가장 중요하고 많은 시간을 구성하는 Technical Session에서는 특허정보 조사·분석과 관련된 29회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발표자들은 주요 특허정보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Questel·Orbit의 David Dickenson, Univentio의 Willem Geert Lagemaat, Patolis의 和田 裕 등), 미국 내 기업의 특허부 소속 특허조사·분석 전문가(Pfizer의 Anne Marie Clark 등), 특허청 관계자 등(EPO의 Daniel Shalloe, USPTO의 Harold Smith 등)이었다. 발표된 주요 주제를 살펴보면, 특허정보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how to find patent information), 특허정보와

(표) Technical Session 구성

1st day	Keynote Address: There's a world Out There... and It Matters.( <i>Stephen Adams, Magister</i> )
	State-of-the-Art Searches.( <i>Lucy Akers, Akers &amp; Co, and Ford Khorsandian, TPR</i> )
	Internet Patent Resources and cost Saving Techniques to Supplement and Enhance Online Database Searching.( <i>Sandy Smith, Patent InforSmith</i> )
	Limitations of Current Technology While Searching & Classifying Data.( <i>Dr. Alok Aggarwal, Evalueserve</i> )
	Method of Treatment and Field of Use Patents.( <i>Subramaniyan Narayanaswami, Pfizer</i> )
2nd day	Getting the Most out of Free Databases at USPTO.( <i>Carl Oppedahl, Oppedahl &amp; Larson LLP</i> )
	Trends in Earliest Patenting Disclosures of Chemistry IP and Occurrence of New Chemistry in Worldwide Patent Offices.( <i>Toussant, CAS</i> )
	Global Patent Sources and Managing the Challenges They Present.( <i>Robert Stembridge, Thomson Scientific</i> )
	Patent Families and Where to Find Them.( <i>Robert Austin, Fiz-Karlsruhe</i> )
	Patent-Related Information Sources of Russia and Other Countries of Former Soviet Union.( <i>Aleksandra Belinskiy, Aventis and Valerian Khutoresky, Information Consultant</i> )
3rd day	The Joy of Text!( <i>Willem Geert Lagemaat, Univentio</i> )
	Patent Analysis: What Have You Done for Me Lately?( <i>Anthony Trippe, Science IP/CAS</i> )
	In-House Collaboration Using Aureka - MAKing Docketed Patent Quickly and Reliably Accessible.( <i>Stuart Dodd, Micro Patent</i> )
	Power Tools for Patent Experts: Maximizing the Value of Classification and Indexing.( <i>Jim Brown, IFI Claims Patent Service</i> )
	What are the Hot Topics in Europe?( <i>Daniel Shalloe, EPO</i> )
	Recent Development in Japan IP Indstry.( <i>Yataka Wada, Patolis</i> )
	USPTO's 21st Century Plan and Harmonization: Where do Things Stand?( <i>Joe Ebersole, USPTO</i> )
	Patent Information Activities at WIPO.( <i>Neil Wilson, WIPO</i> )
	National Situation About Information of Patents in Bolivia, Mexico and the MERCOSUR States.( <i>Edwin Urquidi, Center of Studies of Dev. in Intellectual Property, La Paz, Bolivia</i> )
Reform of the IPC and the Trilateral Harmonization Project.( <i>Harold Smith, USPTO</i> )	



특허문헌을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where to find patent information and patent documents) 등에 관한 것들과, 특허분석을 위한 도구에 관한 것, 그리고 최근의 특허3국 특허청 (Trilateral offices: USPTO, EPO 및 JPO)의 주요 이슈를 특허청 인사들로부터 청취하는 시간들로 구성되었다. 이번 PIUG 컨퍼런스 역시 주제발표장 바깥쪽에 전시회 부스가 마련되었는데, 여기에는 모두 21개의 특허정보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참가했다. 주요 참가기관으로는 MicroPatent, Thomson Scientific, STN(CAS, FIZ Karlsruhe 공동 부스), Patolis, Univentio, Anancubis, Questel · Orbit, 그리고 한국의 WISDOMAIN, WIPS 등이 있었다. 올해 전시회 부스에 소개된 각 기관들의 주력 제품의 경향은 특허정보의 단순 검색 · 열람이 아니라 검색된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plug-in(embedded solution) 제품들이었다. 주요 제품으로는 MicroPatent의 ‘Aureka’, Thomson Scientific의 ‘Derwent Analytics’, Questel · Orbit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Anacubis의 제품들, 한국의 WISDOMAIN의 제품 등이 있었다. 이러한 제품들은 한결같이 정제화 된 기능을 얼마나 손쉽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전시회에서 만난 한 미국 정유회사 소속의 특허분석가 (patent analyst)에 의하면, 요즘 이용자들은 조작방법이 복잡

하거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간결하지 않으면 도무지 그 제품을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국특허정보원도 전시부스를 마련하고 2004년 4월부터 새롭게 보강 · 개편된 ‘KIPRIS – KPA 영문검색’을 시연하고 관련 소책자를 배포했으며, 또한 KPA에 대한 영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허정보원을 알리는 활동에 주력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2002년 PIUG 컨퍼런스(미국의 California주 Berkely 개최)부터 참가하기 시작했다. 2002년과 2003년은 단순히 동향과약을 목적으로 Technical Session에만 참가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4년 운영목표를 ‘특허기술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국내 · 외 위상 제고’로 정한 한국특허정보원은 PIUG 2004년 컨퍼런스의 스폰서(sponsor) 참여를 결정하고 전시회 부스도 마련하게 되었다.

### 참관기를 마치며

올해 PIUG 컨퍼런스의 참가자는 역시 미국 거주자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 등 국적도 비교적 다양해 명실공히 국제 컨퍼런스의 면모를 갖췄다는 생각이 들었다. 1980년대 후반 단순히 특허정보 이용자의 소모임에서 오늘날의 국제적 이벤트로 거듭났다는 사실이 부럽고,

(표) 주요 전시회 부스 현황

기관명	주요서비스 내용	비고
Chemical Abstracts Service (CAS, www.cas.org)	· American Chemical Society(ACS) 산하의 비영리단체로서 STN, CA on CD등을 통해 전세계 잡지(journal), 특허정보를 DB로 구축하여 제공 · 화학분야 정보로 구성된 DB와 주요제품으로 STN, SciFinder 및 다양한 CD-ROM 등이 있음	US
MicroPatent (www.micropat.com)	· 특허 전문(full-text) DB 구축 및 특허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특허허여기관들과 긴밀한 비즈니스관계를 맺고있음(EPO의 INPADOC에서 발행되는 ESPACE CD-ROM에도 MicroPatent의 데이터가 이용됨) · 주요 제품으로 PatentWeb, Aureka 등이 있음 · 전문화된 서비스로써 컨설팅, 교육, 경쟁보고서, ‘Woolcott 조사분석서비스’ 등 제공	US
Questel · Orbit (www.questel.orbit.com)	· 보유 DB는 특허, 화학, 에너지, 과학기술, 상표 등 전반에 걸친 방대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web, C/S 기반으로 제공 · 대표적 특허제품으로 QPAT이 있고, 최근 Patolis의 유럽 공급자로서 Patolis-e를 제공 중	FR
Univentio (www.univentio.com)	· 1952년 설립, OCR등을 이용하여 번역 full-text를 생성하여 주요 vendor(Thomson Scientific, Questel?Orbit등)에 판매중임 · US, EP, GB, WO 등의 영문 full-text뿐만 아니라, JP, DE, FR 등에 대한 번역(영문화) full-text를 구축, 보유하고 있음	NL
Thomson Scientific (www.thomson.com/scientific)	· Thomson Corp.의 계열사인 Thomson Scientific & Healthcare는 최초 Derwent로부터 시작, Wila Verlag, Delphion, Techstreet 등의 관련분야 서비스 제공자들을 인수함으로써 공학?기술분야 전문 정보서비스 제공자로 변모 · 특허, 특허정보인 DWPI를 주력상품으로 하고 있음	US
FIZ Karlsruhe (www.fiz-k.com)	· 1977년 설립된 Leibniz Association 산하 비영리 과학정보서비스 기관으로서 에너지(ENTEC), 수학(MATHID), INIS(원자력), ICSD(무기화학)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화된 DB를 구축, 이를 다양한 방법의 on/off-line을 통해 서비스 · CAS(미국), JST(일본)과 함께 STN 공식 공급자(유럽)	DE


놀랍기도 했으나, 이것 또한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했을(아니더라도, 최소한 미국이기 때문에 수월했을) 것이라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일견 마음이 편치 않음은 어떤 이유일까 궁금했다.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대부분 한국특허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동감하고 있었다. 다만, 언어적 문제 때문에 한국특허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과, 현재 유일한 영문 데이터인 한국특허영문초록(KPA)의 데이터 갱신 주기를 단축해 줄 것(분기간 → 월간), 데이터의 범위를 확충해 줄 것(legal status 등의 추가),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여 줄 것 등을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나 KIPRIS를 통해 KPA가 무료로 서비스 된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워했으며, 앞으로 많이 이용하겠다고도 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특허출원 건수뿐만 아니라 특정분야의 기술 수준에 있어서도 저들이 무시할 만한 위치가 아님을 저들이 먼저 느끼는 분위기이다.



Technical Session의 한 주제발표

터 이미 PIUG의 관심 안에 있었다. 한국 내 특허분야와 관련한 정부, 정부 산하단체(아마도 특허정보원일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관계자 모두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동향에도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문득, 2002년 처음 참가했을 때 그들이 건네준 명함의 직함이 'Patent Searcher', 'Patent Analyst', 'Patent Information Specialist'였던 것, 그리고 전체 직원이 겨우 30명인 어느 제조업체의 특허전문 인력이 다섯명이라는 얘기를 전해 들으며 놀라워했던 사실이 기억난다. 그리고 그 당시 한국에도 빨리 그러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 많아 졌으면 좋겠다고 바라던 기억도 난다. 만으로 2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특허분야에 별반 달라진 것은 없는 듯 느껴진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하지 만은 않다. 



전시회(Exhibition) 모습

지난 2002년의 컨퍼런스 참가 후 2년만의 참가에서 느낀 점은 PIUG의 타 참가자들은 동일인의 꾸준한 참가를 통해 인맥(human network)을 형성시키는 것을 매우 귀중하게 여긴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2002년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2004년에도 만날 수 있었다.

이제 PIUG 컨퍼런스는 적어도 특허분야에 있어서는 간과할 수 없는 행사로 자리매김 되었다는 느낌이다. 각 기관에서 참가하는 자들의 레벨을 살펴보다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였다.(MicroPatent, CAS, Thomson Scientific 등 대부분의 세계 유수 업체에서 이사 또는 본부장 등의 임원이 대거 참가하고 있었다.) 한국의 특허분야 종사자들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여기에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2002년 PIUG 컨퍼런스에 갔을 때의 일이다. JPO의 한 심사관이 어눌한 영어로 일본특허동향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고는 질문에 답도 제대로 못하던 일이 생각난다. 일본은 그때부